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지역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91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22일 (음력 10월 13일) 목요일

서남권특별법 실종

‘서남권’ 명칭 삭제…적용지역 ‘목포·무안·신안’도 없애

한나라 ‘발목 잡기’…건교위 법안소위 기형 처리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서남권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 누더기로 전락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서남권특별법을 심의한 뒤 이를 건교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으나 법안 이름에 ‘서남권 등’이라는 구절이 삭제한 데다 목포, 무안, 신안 등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도 법안 내용에서 빠버렸다.

서남권특별법이 기형 처리됨에 따라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해온 서남권 개발계획은 사업추진의 모태가 될 특별법의 부재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지난 8일 무안국제공항 준공식 참석차 전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권발전계획을 금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약속 이행도 불투명해졌다.

서남권특별법의 기형 처리는 한나라당이 서남권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준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한데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서남권특별법이 정당간의 줄다리기와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서남권특별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안의 명칭에서 서남권 등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 법안심사소위는 목포, 무안, 신안 등 기존 법안에 담겨있던 구체적인 지역의 이름도 완전 삭제했다.

‘서남권 등’이라는 명칭과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제외됨에 따라 타지역도 이 법을 기준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게됐다. 서남권에 한정해 입안된 특별법을 전국의 낙후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변질시켜 물타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이미 정부가 서남권 발전 계획을 모두 세운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합신당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서남권 특별법의 명칭이 바뀌고 특정 지역의 이름이 법안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이미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2006년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일대에 7조1천790억원을 투입, 관광·쇼핑·건강·레저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는 등 ‘서남권발전구상’을 발표했었다. 서남권발전법은 이를 추진할 모태가 되는 법안으로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민주 통합 끝내 결렬

내년 총선 지분 다툼으로 분열…정권 재창출 먹구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및 당 대 당 통합 협상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되돌아 갔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의 통합 협상이 파국을 맞은 것은 대선에서의 결집보다는 내년 18대 총선 지분에 연연하면서 분열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범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21일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단일화와 통합은 민주개혁세력 모두의 의무이자 역사와 미래의 문제”라며 “양당 수뇌부가 참여하는 ‘4자 또는 6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막판 통합 불씨 살리기를 나섰다.

오충일 대표는 “4자 회동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5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임을 감안할 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절박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유종필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인 회동의 합의를 파기한 대표는 더 이상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신용불량 집단과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대통합신당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통합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21일 오후까지 양측이 통합 협상 재개에 실패함에 따라, 본선 후보 등록 이전 합당이 성사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결과는 대선보다도 총선 지분을 의식한 대통합신당과 민주당 각 계파간의 불협화음,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범여권의 정치력 부재가 총체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통합 협상 결렬로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리더쉽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보수세력 분열이라는 호기에 범여권이 결집보다는‘적전분열’로 나눠진 채 대선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당장 후보 등록 이후 다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동영 후보로서는 범여권 세력이 분열된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지지율 정체현상을 돌파하기 힘든 상황인 데다 민주당으로서도 저조한 지지율의 이인제 후보를 내세워 대선국면을 끝까지 돌파해낼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선 등록 이후 일정 정도 냉각기를 거친 뒤 권력분점이나 연정 형태의 재협상론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우림학원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여수 엑스포 결정 D-5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한국대표단이 21일 낮 인천공항을 통해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파리로 출발했다. 오는 23일(현지시간) BIE 각국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파리에서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서 ‘꼭두각시’ 공연을 하는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린이들이 앙증맞은 표정을 지으며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표 공략’ 파리 도착 첫날부터 강행군

파리=홍행기기자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한국대표단이 21일 현지 도착과 함께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강행군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전세기 편으로 파리에 도착한 김재철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한국 대표단은 곧바로 오후 7시부터 주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전략회의를 갖고 BIE회원국 지지성향 분석 및 막바지 득표활동 방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유치위원회 및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인사와 현대·기아차 그룹을 비롯한 기업관계자들도 현지 도착 즉시 막판 유치활동 전략을 다지고 현지 조직망을 점검하는 등 최종 유치전을 준비했다. 또 대표단과 동행한 78명의 여수지역 시민응원단도 현지 교민단체와 접촉을 통해 민간 차원의 유치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어 22일 오전 김재철 위원장이 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수엑스포 개최의 당위성과 의의를 강조하며 BIE회원국 대표 초청 오찬을 통해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이날 저녁에도 현지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BIE대표 초청 문화행사와 주말 유치교섭활동 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dplane@kwangju.co.kr

“이면계약서 원본 내일 검찰에 제출”

김경준씨 부인 LA서 회견…사본 일부만 공개

BBK 주가조작사건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21일 미국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BBK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이날 이씨가 이면계약서 4건의 사본을 공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 나아가 연말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보라씨는 이날 오전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후보가 김씨를 만난 것은 김씨가 BBK를 세운 지 1년 뒤인 2000년 초로 자신은 BBK와 무관하다’는 이 후보측 주장과 관련, “제 남편 김경준이 이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은 1999년도 초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특히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임을 증명하는 4건의 이면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씨는 당초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사인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다며 사본만 공개한 뒤 “이 계약서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이 됐고, 원본도 이번 금요일(23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